

애착 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parenting)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방 회 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영아와 양육자 간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는 애착이론은 주로 어머니와 아동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모성박탈론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10여 년 동안의 애착관련 국내 연구 경향을 토대로, 애착 연구가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으며 어머니 애착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는 소홀히 다루어진 점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애착관계가 상호 호혜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 자신의 자녀애착 경험을 통한 발달은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애착이론에 전제되어 있는 모성과 부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아버지 개입의 중요성 및 공동육아(coparenting)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부모됨의 경험을 통한 부모 자신의 발달적 의미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애착, 양육, 부모기, 모성박탈, 부성

† 교신저자 : 방회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hjbang@ewha.ac.kr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동안 부모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대부분은 출생과 동시에 가정이라는 기본적인 사회 단위에 소속되어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최초의 인간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어린 영아에게서 부모와의 긴밀한 유대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Bowlby (1958)는 생애 초기 영아와 양육자간 관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형성하게 되는 강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뜻하는 애착(attachment)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영아는 출생 시부터 생물학적으로 부모에게 애착되도록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으며,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 자체가 영아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애착은 영아의 애착 대상인 양육자 또한 영아에게 애착된다는 점에서 호혜적 관계이다. 부모가 영아와 형성하는 최초의 결속은 부모가 영아의 사회적 신호에 맞추려고 하고 동시적 일과(synchronized routines)를 형성하면서 더욱 강력하게 형성된다(Stern, 1977; Thronick, 1989). 마치 춤추는 것과 비슷한 영아와 양육자간의 협응된 상호작용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일어나게 되면서 서로에게 더 나은 ‘춤 상대’가 되고, 둘 간의 관계가 양쪽 모두에게 더욱 만족스러워지며 강한 호혜적 애착으로 꽃피우게 된다(Isabela, 1993).

애착 대상과의 반복되는 상호작용 경험은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 지도 즉,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내적 표상은 애착과 관련된 경험이나 사고, 감정을 조직하는 일련의 규칙체계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작동 모델을 발달시키게 된다(Bretheron, Ridgeway &

Cassidy, 1990).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모델로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대인관계 시 자신과 타인의 반응을 예상하고 대인관계 상황의 의미를 해석하는 인지적 바탕의 역할을 하며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는 특성을 갖는다(Bowlby, 1988).

애착의 대상은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에게서, 친구, 연인, 배우자 등으로 확장된다. 애착전이 모델에 의하면 애착 행동의 세 구성요소인 근접성 유지(proximity maintenance), 편안한 안식처(safe haven), 및 안전 기저(secure base)가 한꺼번에 다른 애착 대상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근접 유지가 가장 먼저 전이되고, 다음으로 편안한 안식처의 전이, 그리고 마지막 안전 기저의 전이로 애착의 전이가 완성된다(Hazan & Shaver, 1994). 근접성 유지는 아동 초기에, 편안한 안식처 기능은 청소년기에, 안전 기저는 성인초기에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Hazan, Zeifman, Bartholomew & Perlman, 1994).

대부분의 애착 관련 연구들이 전생애적 접근보다는 어린 아동과 어머니 간의 정서적인 유대에 강조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애착 이론에서 생애 초기에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극적인 변화에 저항적이라고 주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동 모델이 이후의 경험 과정을 통해 조정되고, 재구성되며, 보다 정교해지는 능동적인 구조라는 점도 제안된바 있다(Bowlby, 1988). Bowlby가 “작동”이라는 어휘를 사용한 것이 애착의 내적 표상은 역동적이며,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애착 이론의 재해석과 확장의 여

지는 처음부터 열려있던 셈이다.

복수 애착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서로 독립적인 애착 모델을 가질 수 있다. Bowlby(1982)도 유아가 여러 명의 애착 대상을 가질 수 있으며, 아버지는 이차적인 애착 대상으로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애착 대상은 부모를 넘어서서 배우자, 자녀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내적 작동 모델은 더욱 복잡해진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therton, Biringgen, Ridgeway, Maslin & Sherman, 1989).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 기초한 애착 모델이 중심을 이루면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국내 애착 연구들이 어머니-자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온 데는 가정에서의 일차적 양육자가 주로 어머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 여성들에게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어린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주체를 어머니로 제한시킬 경우 단지 어머니의 양육부담의 가중화를 넘어서서 또 다른 양육 주체인 아버지에게도 발달적으로 바람직한 현실이 아니다. 이제 모성박탈론, 모성 강압 가설, 결정적 시기 등과 궤를 같이 해온 초기의 애착 이론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되고 새롭게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애착 이론에 암묵적으로 기저하고 있는 양육에 대한 가정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부모됨의 의미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여 년간의 국내에서 이루어진 애착 연구들의 동향 분석을 통해, 그동안 국내 연구가 주로 영유아에 집중되어 왔으며 아버

지 애착 연구가 소홀히 되어왔음을 밝히는 한편, 애착을 포함한 양육 주제 전반에 전제되고 있는 모성과 부성의 의미를 재검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부모역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초기 애착과 양육¹⁾

돌봄 체계

광의에서 볼 때 양육성은 어리거나 미숙한 타인을 보살피주는 것을 포함한 도움주기의 한 형태이다(조숙자, 1996). 역사적으로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며 타인을 보살피는 일은 여성의 몫이었다. Parsons(1955)는 남성은 가정에 물질을 공급하기 위한 직업 활동을 하는 ‘도구적’(instrumental)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표현적’(expressive)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이 더 잘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양육적이라는 일상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양육성에서 성차가 없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Berman(1980)에 의하면 남녀의 양육적 반응을 생리적 지표(예, 동공의 크기, 혈압, 심장 박동 등)로 측정했을 경우 양육성에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남녀의 양육 행동을 측정했을 때도 남녀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남녀에게 영아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보고하도록 하면 성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현저히 아기에게 매료되었다고 응답을 했다. 특

1) 본 논문에서 ‘parenting’은 문맥에 따라 양육, 부모역할, 또는 부모노릇으로 사용되었다.

히 혼자 있는 사적 조건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적 조건에서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를 판단하도록 하면 여성들은 사적 조건보다 공적 조건에서 아기가 더 예쁘다고 판단한다. 대조적으로 남자들은 공적 조건보다는 사적 조건에서 아기가 더 예쁘다고 판단한다. 즉 남녀 모두 공적 조건에서는 성 고정관념적 기대에 부응하는 양육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양육성에서의 성차가 사실상 사회 규범에 따라 여성은 더욱 양육적인 행동을 보이려고 하고 남성은 양육적인 행동을 덜 선택하는 데 기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초기 애착이 이루어지는 영아 시기의 양육의 대부분이 어머니라는 주 양육자에 의해 전담되고 있다. Bowlby(1984)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애착 행동과 마찬가지로 양육 행동도 어느 정도 생득적으로 프로그램된 것으로 보았다. Cassidy(1999)는 양육 체계를 애착 체계와 관련 지워, 부모 행동체계의 하나로 돌봄 체계(caregiving system)를 제안하였다. 영아의 부모양육은 양육적 돌봄, 물질적 돌봄, 사회적 돌봄 및 교육적 돌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양육적 돌봄(nurturant caregiving)은 영아의 생존과 안녕에 필요조건으로, 부모가 영아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위험과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영아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양육적 돌봄에는 음식물, 의복, 보금자리, 안전한 환경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물질적 돌봄(material caregiving)은 부모가 영아의 물리적인 세계를 공급하고 조직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부모는 영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물(장난감, 책, 도구 등)의 수와 종류, 환경 자극의 수준 등 아이의 물리적 경험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갖는다. 사회적 돌봄(social caregiving)은 부모 역할의 대인간 측면에 해당되는데, 영아와의 관

계에서 부모가 사용하는 미소짓기, 발성하기, 입맞춤, 포옹하기 등 다양한 시각적,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행동이 포함된다. 교육적 돌봄(didactic caregiving)은 부모가 영아로 하여금 환경 내의 사물이나 사건에 관심을 갖게 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부모는 영아가 환경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외부세계를 소개, 조정, 해석, 관찰, 학습하는 기회를 유발하고 제공한다. 교육적 돌봄은 영아 후반에 특히 중요해지고 그 이후로 갈수록 증가한다(Bornstein, 1995).

부모의 돌봄 체계의 활성화 결과는 아동의 애착 체계의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부모-아동의 근접성이고, 그 핵심적인 생물학적 기능은 아동의 보호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부모와 영아 둘 다 편안한 근접성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돌봄 체계와 애착 체계는 함께 작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이 떠나면 부모는 아동을 되찾으려고 하고, 부모가 떠나면 아동은 부모가 돌아오도록 뒤쫓거나 신호를 보낸다. 돌봄 체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아동의 애착 체계는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될 수 있는데(Bowlby, 1969, 1982), 부모가 근접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맡을 경우 영아의 애착 행동은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돌봄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아동의 애착 체계가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역동적 평형상태(dynamic equilibrium)를 이루어 나간다.

애착 체계와 돌봄 체계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머니에게서 가용성(availability)과 민감성이 높다는 점은 일상에서 모성역할이 부성역할보다 강조되는 결과를 정당화하기 쉽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용성이나 민감성이 반드시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성장과 함께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성의 내용도 다양하게 분화되고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면서 역할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을 양육의 전담자로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녀의 균형잡힌 발달을 제한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 행동의 반경 및 아버지 자신의 자아 발달을 제한할 수 있다. 결국 남성을 제외시킨 여성의 양육성 강조는 애착 발달에서의 부성의 기여를 간과하거나 평가절하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양육에서의 중요한 자원의 한 축을 포기하는 일이 된다.

부모됨의 발달단계

부모기(parenthood)²⁾를 발달의 단계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된 시발점은 정신분석학적 접근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성인은 부모됨을 통해 아이에게 본능적인(drive-motivated) 정서적 투자를 하면서 호혜적인 심리내적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부모 자신의 성격 변화까지 이끌어내게 된다(Anthony & Benedek, 1970). 양육을 통해 자녀가 발달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부모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갈등을 겪게 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부모 또한 새로운 성숙의 단계로 변화한다. 즉 성인이 세상을 향해해 나가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방법은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새롭게 변화된다. 이러한 관점은 부모 시기, 즉 부모기를 부모 자신의 자아 발달(예, 자기효능감 증진 등)과 환경(예, 가족관계에 초점 맞추기 등)의 재조직을 위한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인생 단계로 보는 틀을 제공해 주었다.

2) 본 논문에서 'parenthood'는 문맥에 따라 부모기, 부모됨, 부모되기로 사용되었다.

한편 Galinsky(1981)는 부모됨의 발달을 6단계로 구분하였다. 심상-형성 단계(image-making stage)는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시기로, 미래의 부모로서 아이의 출생과 부모됨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의 부모의 과업은 역할 전환의 준비, 아이에 대한 느낌 형성, 아이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아이를 조화시키는 것, 다른 중요한 성인들과의 관계에서의 변화를 준비하는 것 등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 기간 동안에 애착에 대한 표상이 되살아나는 경험이 현저해지는데, 이는 자신의 아동기 경험, 특히 친정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생애 초기에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을 발달시키면서 자기 모델이 발달하는 것처럼, 여성들의 경우 임신 중에 자녀에 대한 표상과 양육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표상이 발달하게 된다. 즉 임신 기간 동안, 여성들은 '어머니됨'을 준비하면서 여성으로서, 부인으로서, 딸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표상이 재구조화된다(Stern, 1995). 최근에는 이 시기의 아버지(예비 아버지) 경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육 단계(nurturing stage)는 출산부터 아이가 대략 2세가 될 때까지이다. 아이가 "싫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시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때 부모는 자녀가 어떠하리라는 이전의 기대와 실제 부모되기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 단계의 주요 과제의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애착 형성이다. 새로운 가족으로 등장한 아이에게 애착이 이루어지려면 대략 2주 정도가 걸린다. 애착은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분리(seperatedness)와 연결(connectedness) 경험 모두를 포함한다. 이 단계의 부모는 얼마나 많은 시간

을 아이에게 헌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생활에 투자해야 하는지 우선 순위를 평가하게 된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의 경우 이 시기의 부모역할을 어머니(아내)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 단계(authority stage)는 아이가 2~5세인 시기로, 부모가 어떻게 힘(power)를 다룰지를 고심하는 때이다. 즉 책임감, 효과적인 의사소통, 자녀의 보호, 제한 두기, 자녀와의 갈등 및 투쟁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해 부모로서의 고민이 시작된다. 여기서 권위 문제는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다른 양육자, 조부모, 보모, 교사, 이웃 등)과의 권위 관계를 다루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지나치게 아이의 양육에 관여할 경우 부모로서의 힘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를 숙고해야 한다.

해석 단계(interpretive stage)는 자녀가 5~12세가 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의 부모의 주요 과제에는 아이에게 세계를 해석해주고, 자아 개념을 발달시켜주고, 질문에 답해주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기술에 접근하도록 해주고, 가치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권위 단계를 거쳐 해석 단계에 이르면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기대가 커지게 된다. 이 시기의 아버지 부재는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호의존 단계(interdependent stage)는 자녀가 청소년이 되는 시기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부모는 성장한 '새로운' 자녀의 모습에 직면하며 상호작용해야만 한다. 상호의존 단계에서는 이전의 부모-자녀 관계(예, 의사소통)의 모든 측면들이 재조정되고 새로운 문제들(예, 성)이 언급되어진다. 부모의 일방향적인 권위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며 상호 존중하는 동반자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된다.

분리 단계(departure stage)에 이르면 자녀는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게 되며, 부모 역할도 바뀐다. 부모의 중심 과제는 이제 자녀와의 연결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성장한 자녀의 분리와 개별화를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된다. 이 시기에 '빈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이라는 심리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분리 단계는 평가(evaluation)의 시기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 부모는 자녀들이 얼마나 멀리 떠나갔는지 생각하면서 그들 자신이 바라던 '부모-성장한 자녀' 관계를 이루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결국 부모됨의 중심에 부모-자녀 관계라는 '관계'의 축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자녀 간의 쌍방향적 애착은 인생에 걸친 중요한 발달 주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비록 어머니됨 혹은 아버지됨을 어떤 내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가에서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부모됨이 이후 생애에서의 개인의 발달과 성숙의 기회라는 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내 애착 연구 경향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애착 관련 연구들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아동 및 성인의 발달관련 주제를 비중있게 다루는 분야의 정기학술지를 선정하였다. 그 가운데 연구제목 혹은 주제어 검색에서 '애착'이라는 용어가 삽입된 애착 관련 논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이러한 절차로 14개의 학회지에서 119개 논문들을 선정하여 연구자가 정한 분류

표 1. 애착관련 연구에서의 연구대상 유형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
초등학생 이하	1	7	4	5	2	3	2	8	7	6	3	48 (26.7)
중·고등학생	1	2	2		1	1	5	4	4	1	2	23 (12.8)
대학생 (대학원생)			3	3	5	2	3	6	3	2	4	31 (17.2)
성인	1	6	2	3	5	3	2	5	6	4	3	40 (22.2)
노인							1		1			2 (1.1)
임상집단		1			3		1	1	3			9 (5.0)
쌍-연구	1	6	1	2		2		3	2	1	2	20 (11.1)
기타 ^a				1	1	2	1	1			1	7 (3.9)
전 체	4	22	12	14	17	13	15	28	26	14	15	180

a. 문헌연구, 도구의 타당도 연구, 순수 외국인 피험자, 사람이외의 애착대상

체계에 의거해 분석하였다⁴⁾

연구대상

국내 애착관련 연구들에서 조사된 연구대상

- 3) 유아교육학에서는 유아교육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아동학에서는 아동학회지, 청소년학에서는 한국청소년연구, 심리학에서는 발달, 임상, 상담 및 심리치료 등 7개 분과에서 발간되는 한국심리학회지를 포함함.
- 4) 김미정·강인설 (2008). ‘애착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1995년~2007년’의 분류 체계를 참고함.

유형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으로 초등학생 이하(영·유아 포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8편(26.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40편(22.2%), 대학생 연구가 31편(17.2%), 중·고등학생 연구가 23편(12.8%)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단 2편(1.1%)에 불과했다.⁵⁾ 한편 쌍연구는 전체 연구 중 편수 중 20

5)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 유아교육학 분야는 학령기 이하 연령의 애착연구가 많았고(70.6%), 심리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학생(대학원생)과 성인의 비율(68.5%)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편(11.1%)이었으며, 이 가운데 유아가 중심 대상인 연구가 12편(60%), 영아 대상이 7편(35%), 고등학생 대상은 단 1편에 불과했다. 특히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녀-어머니 쌍연구만 있었을 뿐 자녀-아버지 쌍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또한 모든 쌍연구들이 애착의 쌍방향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방향적인 아동중심적 접근을 하고 있었다.

애착대상

애착관련 연구에서 평가된 애착대상의 유형은 <표 2>와 같다. 부, 모 모두를 애착대상으로 한 연구 비율이 32.5%(39편)로 가장 많았고, 의미있는 일반 타인에 대한 애착 연구가 25%(30편), 어머니 애착만은 24.2%(29편), 복합 애착이 17.5%(21편)이었다. 특히 아버지 애착만을 측정하는 것은 단 한편에 불과했다. 연구 호

름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혹은 부모 모두를 다루는 연구들은 연도별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2000년 이후로 의미있는 타인과 복합 애착에 대한 연구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사회적 양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버지 단일 대상의 연구는 2002년 이후에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령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연령에서는 어머니 단일 애착만 측정하는 것이 22편(75.9%)으로 매우 우세하였다.

한편 부모 모두를 애착대상으로 한 연구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심리학 분야에서도 특히 임상 영역과 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애착 연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어머니 애착이 갖는 설명력에

표 2. 애착관련 연구에서의 애착대상 유형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
어머니	1	5	3	3	1	2		8	3	2	1	29 (24.2)
아버지				1								1 (0.8)
부·모	2	4	3	3	4	2	5	3	5	4	4	39 (32.5)
복합 ^a (2명이상)		1	4	2	1	2	2	5	3		1	21 (17.5)
기타 ^b			1		5		6	4	8	3	3	30 (25.0)
전 체	3	10	11	9	11	6	13	20	19	9	9	120

a. 부모+ 교사, 부모+ 또래, 부모+교사+ 또래

b. 타인양육, 연인, 배우자, 의미있는 타인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아버지 애착은 대체로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 이론 자체가 어머니를 주 애착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므로써 아버지 애착의 특수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채 아버지 애착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애착 연구 영역

국내 애착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학령기 이하의 아동집단을 중심으로 어떤 영역에서 애착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아동 애착을 측정한 연구들은 아동의 애착유형과 부모의 양육자 특성과의 상관을 보는 연구들이 13편(17.1%)으로 다수에 속했다. 아동과 애착대상인 양육자로 나누어 애착연구

에서 주로 다루어진 연구 변인들을 분석해본 결과(표 3), 아동의 경우 정서·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연구가 19편(32.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애착유형을 다룬 연구가 10편(17%)이었다. 반면에 애착대상자인 양육자의 경우 주로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 변인들 중심의 연구가 13편(76.5%)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종합해보면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의 국내 애착관련 연구에서 연구 대상은 여전히 초반기 연령중심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애착대상은 어머니와의 유대를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는 거의 간과되고 있었다. 아버지 역할을 다룬 한편의 논문에서도 아버지 효과는 아버지의 직접적 양육 개입에 의해서보다는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감에 의해서 예측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아버지와 아동간의 따뜻하고 친밀한

표 3.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애착 연구 영(중복 측정)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아 동	정서·사회성 발달		2	2	3	1		1	3	2	2	3	19
	인지·언어 발달			1							1		2
	신체발달			1									1
	자아발달			1	1	1		1			1		5
	문제행동		1			1		1		2			5
	적응						1		2	2	1		6
	애착유형	1	2	1	1		1		2	2			10
	애착행동		3	1			1		3	1			9
	부모표상								1		1		2
	양 육 자	양육행동		5	1	1		2		2	1	1	
애착유형		1	1				1						3
부모표상										1			1
전 체	2	14	8	6	3	6	3	13	11	7	3	76	

관계가 애착안정성의 일부를 설명한다고 밝힌 정도였다. 특히 양육자에 대한 관심이 주로 양육행동 변인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내 애착 연구들의 대부분이 애착의 양방향적 특성이나 양육자 개인의 발달 측면은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자리: 모성과 부성

모성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모성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문화적 구성물로, 그 시대의 여성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이다. 한국 중산층 가정의 경우 서구의 모성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한국의 시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 문화특유의 모성 이데올로기를 출현시켜왔다(윤택림, 2001). 조선시대에 강화된 가부장주의는 현재까지도 가정 내에서 상당 부분 정당화되고 있으며, 엄부자모의 기본 가정 또한 이상적인 양육 유형으로 존중받고 있다. 그럼에도 근래 산업화와 함께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현실 속의 아버지들은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보다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에 매달리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어머니들은 과거보다 자녀와 더욱 밀착되는 양육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자녀 양육이 여성들에게서 현실적으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고 있다(홍승아, 2008)

모성박탈론

Bowlby에(1977)는 생애 초기에 주요 애착대

상과 형성한 강한 유대 관계가 이후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원형으로 작용하게 되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모성 박탈 가설(maternal deprivation hypothesis)에서는 일차적 애착 대상인 어머니를 양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로 보며, 영아가 어머니 같은 한 사람의 주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에 실패할 경우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성 박탈 가설의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관찰 결과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키부츠(Kibbutz)와 같은 환경에서 다수의 양육자들에 의해 보살핌을 받은 영아들의 경우도 매우 정상적인 발달을 보여주고 있다. 영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양육자가 한명이든 여러 명이든 영아의 사회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사회적 자극 가설(social stimulation hypothesis)에 의하면 영아가 자신의 사회적 신호에 일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접촉하지 못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양육자가 자기 행동에 맞춰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영아는 자신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며, 이것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작동 모델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 통제감이 확장되면서 유아는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여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Chodorow(1978)는 여성의 '모성성'과 남성의 성취적 '도구성'이 초기 자녀양육 과정을 어머니가 전담하는데서 비롯된 인성 발달의 산물로 보았다. 실제로 어머니가 가용적이어도 부절적인 양육방식일 경우 모성실조아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유아기에 엄마와의 관계형성

에 실패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후 성장에서 문제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의 기질에 따라, 아버지의 태도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양육자가 얼마만큼 잘 돌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맥락에서의 다차원적 변인들을 고려한 애착의 상호 복합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증하며 이전의 결정론적 모성박탈론은 한 단계 진보하게 되었다(Caplan, 1954; Scarr, 1984). 아버지도 충분히 돌보는 기능을 하고(Belsky, Gilstrap, & Robin, 1984), 아버지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아동은 아버지를 애착 대상으로 삼는다(Cox, Owen, Hendersin, & Margand, 1992).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전통적인 가정 안에서 자라는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 간에 어떠한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carr, 1984). 애착 대상으로서의 아버지 양육의 정당성이 입증되면서, 유아는 어머니 이외의 사람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으며 여러 명과도 애착 형성이 가능하다는 다면적 애착의 가능성이 제안되었다. 나아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양육자도 질적인 측면에서 아이를 잘 보살피 준다면 안정 애착이 형성될 수 있고, 영아의 부모와의 애착형성에 있어서도 부모와 얼마큼 시간을 보내느냐의 양적인 문제가 아닌 영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정상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되었다.

모성강점가설

아버지 애착보다 어머니 애착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은 모성 강점 가설(maternal strength hypothesis)(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3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조사결과 남녀 모두 아버

지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나타냈다(Paterson, Field, & Pryor, 1994). 또한 연령증가와 함께 남녀 모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안정되게 유지되었으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성인의 애착 성향과 더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rennan & Shaver, 1993; Main, Kaplan & Cassidy, 1985). 즉, 남녀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높은 애착을 나타냄으로써 어머니가 아동의 주된 양육자로서 가장 선호되는 애착인물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Forbes & Adams-Curtis, 2000.; Haigler, Day, & Marshall, 1995; Lytton, 1980). 그러나 초기 애착 이론에 근거한 어머니와의 관계 중심 모델 자체가 아버지의 관계 특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 점에서 기존 애착 연구들에서 아버지 효과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모성의 생물학적 근거를 강조하는 입장도 모성강점 가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Tiger와 Fox(1971)에 의하면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 자녀와 밀접하게 연결되게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영아에게 보이는 애정적 행동은 생물학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머니의 경우 옥시토신, 아버지의 경우 바소프레신 등의 호르몬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옥시토신의 분비는 분만 후와 수유 과정 중 모자간 정서적 유대 형성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Insel, 1997).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경험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와의 초기 양육 경험이 이후의 적응에 중요함이 밝

혀졌다. 어린 시절 부정적인 양육경험을 한 사람들의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 과제 상황에서 코티졸과 도파민 수준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자율신경반응의 변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ruessner, Champagne, Meaney, & Dagher, 2004). Balbernie(2001)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뉴런들 간의 연결뿐 아니라 생화학적 반응의 패턴을 결정하고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준다. 즉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반복 경험한 스트레스가 뇌에서의 특정한 신경화학적 반응 패턴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성행동이 상당부분 선천적인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해도 뇌의 기능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애착 또한 뇌의 생화학적 조절 기능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송하나, 2006). 결국 애착에서의 모성강점 가설 또한 이 시대에 맞게 재포장된 모성박탈론의 새로운 버전에 불과할 수 있다. 기존의 애착 이론에서 암묵적으로 주장되어온 모성 강조는 이제 변화된 시대사회적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이론틀로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부성

가정과 사회에 걸쳐 오랜 동안 가부장적인 남성성이 인류의 역사를 지배해왔다. 이러한 강한 남성성이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1세기에 들어서 여성 고용의 증가, 성역할의 변화 등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동은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최근 들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낯설었던 남성들의 양육자로서의 아버지됨 즉, 부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버지됨

과거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은 주로 가부장적인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 상이었다. 일반적으로 부성의 특징은 힘, 단호성, 자유, 능동성 등으로 기술되어진다. 이는 부드러움, 표면에 나서지 않음(self-effacement), 수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모성과는 대비되면서, 결과적으로 남성은 자녀양육에 부적절한 성으로 당연시되어 왔다. 특히 모성의 생물학적 결정론이 대중적 지지를 받으며 역설적으로 남성들은 ‘남성다움’을 확립하기 위해서 오히려 양육성이 억압되어야 하는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모성 신화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부성 또한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지배적 남성성은 일종의 사이비 천성(Pseudonatur) (Dahmer, 1982; 정유성, 2008 재인용)에 불과할 수 있다. 근래 점차 아동과 청소년들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전반에 걸쳐 아버지의 사랑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인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Veneziano, 2001). 이는 부성의 영향력이 모성의 영향력만큼 클 뿐 아니라 발달 영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아버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해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부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생물학적, 개인적, 가족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생물학적 요인. 오랫동안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동안 호르몬 변화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모성은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반면 남

성의 경우 양육 행동과 관련된 호르몬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 의해 아버지의 양육 행동 또한 호르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Storey Walsh, Quinton, Wynne-Edwards, & Katherine. 2000). 낮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높은 수준의 프로락틴(prolactin)과 코티솔(cortisol)이 아버지의 양육 행동과 관련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남성의 호르몬 수준은 상대 여성의 호르몬 수준 변화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사회적 변수에 의해 생물학적인 변화가 생김으로서 양육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개인적 요인. 남성에게 따라 다른 개인적 요인들이 부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의 심리적 배경, 가족 환경, 아버지역할(fathering)에 대한 태도, 동기, 자녀 양육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이 포함된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스타일은 자신의 부친의 양육 행동을 모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즉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아버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관여의 결정 요소일 수 있다(Parke, 1996). 아버지의 성격도 양육활동 관여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데, 진보적인 아버지는 전통적인 아버지(관여는 하지 않으면서 훈육적인 아버지)에 비해 덜 불안해하고 덜 적대적이며 덜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다(Jain, Belsky & Crnic., 1996). 그리고 흥미롭게도 더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 자신들보다 아버지(남편)의 양육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ussell, 1983).

가족적 요인.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는 가정 내 어머니의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Allen &

Hawkins, 1999). 예를 들어 여성의 ‘모성주의 숭배’(cult of maternalism)는 남성이 가정과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Beitel과 Parke(1998)에 의하면 어머니가 양육 행동에 참여하는 아버지(남편)의 동기와 흥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버지의 양육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관여에 얼마나 가치를 두는지에 따라 아버지 개입 정도가 달라진다. 즉 어머니가 양육 능력에 관한 생득적 성찰을 믿고 있거나 그러한 믿음을 기준으로 남편의 양육 행동의 질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편의 양육 관여 수준을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 아버지의 관여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태도는 아버지의 참여 수준을 높여 준다(Bonney, Kelley, & Levant., 1999). 또한 남편에 대한 아내(즉 어머니)의 지각이 남편의 아버지로서의 관여 수준과 상관이 있는데(McBride & Rane, 1997), 아내가 남편을 자녀의 부모로서 지각하는 것은 남편의 관여를 증가시키는 반면, 남편을 생계부양자로 인식하는 것은 남편의 양육 활동의 관여 수준을 감소시킨다. 부부관계의 질도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보다 부부관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 결혼 만족도가 높을 경우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지는 반면 부부 갈등과 부부간의 부조화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 정서적 가용성의 결핍, 그리고 부적절한 양육방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아버지 개입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아버지의 개입(father involvement)을 통해 이루어진다. 1970~80년대 서구사회의 학계를 지배했던 아버지 개입 영역은 최근 들어서 더 포괄적이면

서 다차원적인 차원들로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 접근성(accessibility), 관여(engagement), 책임감(responsibility)의 세 차원으로 구분된다. ‘접근성’은 아버지와 아동 사이의 실제적인 상호작용과 관계없이 아버지가 아동에게 실재하고 이용가능한지를 말한다. ‘관여’는 아버지와 아동과의 직접적인 접촉경험, 양육, 공유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책임감’은 부모의 선택, 방과 후 활동 선택, 교사와의 대화, 아동 활동의 모니터링, 아픈 아이 돌보기, 소아과 의사의 선택, 약속하기 등에서 아버지가 아동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에 얼마만큼 참여하는지를 말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차원을 포괄해서 아버지와 아동 사이의 관계가 지지적일 때 아버지 개입은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아버지 양육에 대한 연구들은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꾸준히 아버지 효과가 지지되고 있다. Cabrera 등(2000)이 아버지의 개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정서적 투자(emotional investment)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 정서적 안녕,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되었다. 아동 중기의 아버지 개입은 자녀의 학업 성취 및 학교에 대한 호감과 상관이 있으며, 청소년기 아버지와와의 강하고 밀접한 애착관계는 보다 바람직한 교육적, 행동적, 정서적 결과를 산출했다. 그리고 아버지 개입의 양과 질 모두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Veneziano(2001)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거부 차원이 자녀의 영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의 심리적 안녕과 건강은 물론 심리적, 행동적 문제들과도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연령대에 걸쳐 아버지 사랑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아버지 사랑이 자녀의 성격과 심리적 적응문제,品行과 범죄 문제, 약물 남용 등에서 유의미한 예측 변인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아동의 어머니와의 애착 양식과 아버지와의 애착 양식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되어왔다(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Bretherton, 1985; Bridges, Connell, & Belsky, 1988; Main & Watson, 1981; Fox, Kimmerly, & Schafer, 1991). 아버지와 의 애착은 자아 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초등학교생들의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 어느 한 쪽에라도 높은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부모 모두에게서 낮은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동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영, 최태진, 2007). 청소년들에게서도 아버지와 의 애착 효과가 있었는데, 우수 여학생들의 경우 아버지와 의 애착관계가 이들의 양성성을 발달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여 결과적으로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유성경, 이항심, 황매향, 홍세희, 2007). 대학생의 분리-개별화에서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 애착이기보다는 아버지와 의 애착으로 나타났다(장휘숙, 2002). 남성의 성실성은 주로 아버지와 의 애착에 의해 형성된다고 제안되었다(장휘숙, 2003).

한편 Paquette(2004)는 어머니-아동과 아버지-아동의 상호작용의 비교한 연구에서 아버지들이 세상을 향한 아동의 개방성(openness) 발달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격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아이들이 낯선 상황에서 용감해지는 것을 학습하고 자립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 이같은 ‘아버지-아동 활성화 관계’(the father-child activation relationship)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진정

하고 편안해지는 것에 목표를 두는 ‘어머니-아동 애착 관계’와 비교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역동은 아버지와 아동의 정서적인 유대의 맥락에서만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버지 애착과 양육행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합하면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 및 발달에 있어서 양육에서의 아버지의 개입과 참여, 아버지와의 애착, 아버지와의 놀이 활동 등이 중요함을 보고하고 있다. 모성에 포함된 가치들, 예를 들어 보살핌, 친밀감,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등은 어머니뿐 아니라 자녀의 또 다른 부모인 아버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자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결론 및 논의

자녀가 초기에 경험하는 세계의 대부분이 가족 내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부모라는 두 성인 양육자가 자녀 삶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책임지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한 아동의 행동이나 적응 상태와 관련하여 '누 집 자식이다'라는 정보를 통해 그 아동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동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래서 어떻게 양육되었을 지를 추론함으로써 그 아동 행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 과거에는 '호로 자식'이라는 말만큼 모욕적인 말이 없었는데, 가정에서 배운 게 없이 막되게 자란 사람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를 넘어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Noddings(1984)는 ‘관계’(relationship) 자체를 존재론적으로 기본적인 것으로 본다. 그의 관점에서 ‘보살핌’은 곧 관계의 개념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어떤 관계이든 돌보는 자(the one-caring)와 돌봄을 받는 자(the cared-for)라는 두 가지 입장으로 맺어진다고 이때 돌보는 자는 돌봄을 받는 대상 속에 자신을 대체시키거나 동기화되어 몰두하게 되는데, 부모-자녀 관계는 이러한 관계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고전적 애착 이론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 가운데 특히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으로써 돌보는 자로서의 어머니 상을 고착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애착 연구들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맺어진 애착이 자녀의 이후 발달에서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유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주장해왔다(Erickson, Sroufe & Egeland, 1985; Lafreniere & Sroufe, 1985; Pastor, 1981). 반면, 어머니와의 불안정한 애착 형성은 아동기의 문제행동 뿐 아니라 정신병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예측 변인으로 지적되었다(Greenberg, Speltz & Deklyen, 1993; Pianta, Nimetz & Bennett, 1997). 이 시대의 어머니들조차 어린 자녀의 발달 및 적응 전반에서 모성역할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에서 자녀양육이 여성에게 일임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부터였다. 그 이전에는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지 않았고 자녀양육도 대가족의 여러 성원에 의해 이루어졌다(조성숙, 2002).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모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모성성을 양육에서의 절대적인 가치로 강조하는 것 자체가 모성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비판받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갈수록 아버지의 부재가 심화되면서 양육의 주된 책임이 모두 어머니에게로 넘겨지고 있

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뜨고 있는 ‘알파맘’과 ‘베타맘’이라는 어머니상에서도 우리는 신중 모성 신화를 읽어내게 된다. 어머니가 자녀 교육(성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이 시대의 유능한 어머니란 자녀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알파맘이 되어야하는 동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려해주는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베타맘의 특성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시대 어머니들이 엄모자모로의 역할전환으로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듯이, 아버지들 역시 다른 방식으로 부성의 위협을 받고 있다. 과거의 엄부상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으며, 한국특유의 장시간 노동문화 여건 속에서 ‘아버지 부재’에 대한 비난까지 온통 개인이 감당해야하는 실정이다. 아버지들 스스로 가족의 생계부양 책임과 함께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구같은’ 아버지를 바람직한 부성으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괴리가 크다. 모성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구성되어왔듯이 부성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역할 또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고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초기의 애착 이론이 성역할 분담이 정당화되던 산업화 이후 시기의 전쟁 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동물 실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전적 애착 이론에서 주장되고 있던 가정 그대로를 오늘날의 양육 상황에 적용시켜 모성과 부성을 설명하는 데는 제한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에서는 애착과 양육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을 바탕으로 ‘공동육아’의 필요성 및 ‘부모됨’의 의미를 ‘부’와 ‘모’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공동육아(coparenting): 아버지의 육아 참여와 사회적 양육

여성주의자들은 여성 억압의 근원이 여성의 양육역할과 무관할 수 없다고 본다. 젠더화된 세계 속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돌봄과 양육을 강조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랫동안 부모의 역할은 성을 기준으로 하여 파슨스식 이분법으로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로 나뉘어 여성에게는 정서적 역할을 특화시키고 남성에게는 과업 성취 및 가족과 외부 세계의 연결 역할을 특화시키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애착 연구자들이나 임상가들조차 양육(parenting)보다는 어머니역할(mothering)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애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애착 효과를 보고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Ryan, Solburg, & Brown, 1996). 모성박탈론, 초기 애착을 강조하는 결정적 시기 등 애착 관련 가설들은 여성을 자녀에게 묶어두려는 ‘모성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구별적 부모역할 수행이 점차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Hugent, 1991). 여성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 여성의 삶에서 어머니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직업의 비중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ffman, 1977). 아버지의 역할 또한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으며(Cabrera et al., 2000), 자녀양육에 직접 참여하는 아버지도 증가하고 있다(Hoffman, 1989). 아버지에게서도 기존의 부성의 역할은 감소되는 반면에 자녀양육에 협조해야하는 필

요가 점점증하고 있다. 이제 이상적인 아버지 상은 일상에서 자녀양육의 구체적인 부분에 적극 참여하며, 자녀와 좀 더 표현적이고 친밀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바뀌고 있다(Rotundo, 1985). 이는 21세기에 이르러 모성과 부성의 구별이 모호해진 ‘양성적’ 부모역할 개념(유안진, 신양재, 1993)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현실은 가사와 양육이 여성의 몫이라는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로 인한 많은 취업 주부가 겪게 되는 역할 과부하는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Chodorow는 성적 불평등이 여성의 독점적 육아에 의해 재생산된다고 주장하면서, 가족 내에 아버지가 부재하고 어머니가 육아를 전담할 경우 남아와 여아는 다른 성역할 정체성 형성 과정을 겪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여아의 경우 어머니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적 동일시(personal identification)가 일어나면서 성역할을 습득하게 된다. 반면에 남아들은 아버지가 돌봄의 역할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개인 동일시를 할 수 없으며, 아버지가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남성의 역할을 지위동일시(positional identification)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어머니 혼자 양육을 담당할 경우 발달 과정에서 여아에게는 관계성, 남아에게는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남녀 이분법을 고착시켜나가게 된다. 이에 Chodorow는 남아나 여아 모두 한 명 이상의 성인들에게 개인 동일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남자는 주변에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남성들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아는 양육 뿐 아니라

가치있는 역할을 가지고 합법적인 힘을 행사하는 여성들이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남녀 모두 개인화되고, 강한 자아감을 발전시키고, 긍정적이며 안정된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조혜자, 2002).

애착 이론의 접근들에서도 생애 초기의 형성되는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어머니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애착 대상으로 확장되어나갈 수 있음이 제안되고 있다. 애착 표상은 상호 관련되어 있는 다차원적 내적 모델들의 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육자와의 관계 뿐 아니라 또래 및 다른 타자들과의 관계 경험의 역사로부터 추출된 내용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은 복수 애착의 개념화를 가능하게 하여, 자녀 양육의 문제를 어머니가 전담해야한다는 관점으로부터 양육에서의 아버지 적극적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의 기반을 제공해주게 된다. 나아가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주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가장 영향력이 크기는 하지만, 영역에 따라서는 다른 애착대상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근래 ‘자녀중심주의’,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 역할의 비대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제 양육의 문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의 아버지의 참여를 강조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사회적 양육의 차원으로 접근 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볼 수 있다.

부모됨의 의미: 자아실현과 부모권

부모됨은 한 개인이 성숙에 이르렀다고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성인 역할의 하나로 (Hoffman & Manis, 1979), 개인의 생애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게 된다. 대부분의 여성, 남성에게 있어서 부모됨은 생애의 궁극적 의미의 출처이기도 하다(Huyck & Hoyer, 1982).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며, 부모의 생애 의미감과 목표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이다. Erickson(1950, 1968, 1982)은 성인기 발달의 핵심 개념으로 생산성(generativity)을 제안했는데, 여기서 생산성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돕는 것을 말한다. 생산성은 현실에서 여러 방법으로 성취될 수 있지만 자녀의 삶을 보호하고 자녀와 삶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끌고 가르치는 부모됨의 맥락에서 이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부모됨은 부모로써 가르치고자 하는 내재적 소망을 경험하는 기회이자 다른 이를 돌보고자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need to be needed”가 실현되는 장(場)이기도 하다(Erickson, 1982). 이러한 관점들은 부모 시기, 즉 부모기를 부모 자신의 자아 발달(예, 자기 효능감 증진 등)과 환경(예, 가족관계에 초점 맞추기 등)의 재조직을 향한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주요한 인생 단계로 보는 틀을 제공해주게 된다.

여성의 경우 임신 기간 동안 아기와의 일체감을 가질 뿐 아니라 출산 후에 아기를 돌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부모로서의 정체감이 정체체감 발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남성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등 아버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인기의 성공적인 과업을 이룰 수 있으며, 성격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Hawkins & Belsky, 1989). 부모로서의 전환은 남성으로 하여금 기쁨, 만족감, 성취감 등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Russell, 1974). 부

모됨에 대한 보상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성취감, 자녀 성장에 영향을 주며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의 증가(Lamb, Pleck, Levine, 1985) 등 다양하다. 남성들의 경우, 아버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때 아버지로서의 자신감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다시 자신감이나 만족감이 강화되어 아버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즉, 어머니됨의 경우 못지 않게 아버지가 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며, 아버지 개인의 성숙과 함께 부부관계에도 도움을 준다(Cowan, 1988). 로저스(Rogers, 1961)에 의하면 인간의 삶 속에는 자기를 확장시키고 자율화시키고 발달시키고 성숙시키려는 충동, 즉 인간의 전반적인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활성화 정도에 따라 자기를 증대시켜나가게 된다고 한다. 결국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통해 부모가 되고자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달성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보다 성숙해지며, 자신이 성인의 대열에 속했다는 성취감을 얻게 된다는(조성연, 2006) 점에서 부모 개인에게서 성장의 중요한 동력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됨의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려는 욕구 외에 그들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갖는다(장휘숙, 2008).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시기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일을 제한받거나 침해받게 됨으로써 부모됨이 역설적으로 부모의 개인적 발달 욕구를 저해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주 양육자로서의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양육으로 인한 과부하는 개인으로서의 자아실현이나 성취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즉 여성의 현실에서 부모됨이나 양육 경험을 긍정적인 ‘생애 과업’으로만 받아드리기에

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남성의 상황이라고 해서 부모됨을 편안하게 받아드릴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초인적 아버지(superdad)와 초인적 어머니(supermom)가 요구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상 우리 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한국 사회의 돌봄 위기(care crisis)나 부모들의 소모증후군(burnout syndrome)⁶⁾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어머니 역할 외에 다양한 지위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역할에 충실한 남성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했다. 이는 여성들은 부모역할과 함께 다른 역할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그리고 남성들은 직업역할과 함께 부모역할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부모됨과 자녀와의 애착 경험이 자녀 뿐 아니라 부모 개인의 기쁨과 자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학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양육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실천가능한 모성과 부성의 역할을 탐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진경, 최혜경 (2001).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1-24.

6) 소모증후군이란 과중한 역할요구로 인한 극단적인 정서적, 신체적 피로증후군으로, 양육 부담으로 인해 부모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병리적 증상이다.

강혜경 (2008). 여성주의 윤리 시각에서 본 여성의 모성. 여성학논집, 25(2), 81-116.

김미정, 강인설 (2008). 애착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1995년~2007년. 아동학회지 29(5), 165-180.

김태련 외, (1996). 여성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송하나 (2006). 애착 행동에 대한 신경화학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29-45.

유성경, 이항심, 황매향, 홍세희 (2007). 학업우수 여학생의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및 진로장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8(3), 431-454.

유안진, 신양재 (1993)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와 부모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41-155.

윤택림 (2001). 한국의 모성. 미래인력연구원.

이희영, 최태진 (2007).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20(1), 23-41.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장휘숙 (2003). SOC 전략과 관련된 변인들-연령, 성, 애착, 성격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43-258.

장휘숙 (2008). 가족심리학. 박영사.

정유성 (2007) 한국 사회 아버지 담론. 한국여성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37-55

조성숙 (2002).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 한울 아카데미.

조성연 (2006) 예비 부모교육. 학지사

조혜자 (2002). 여성, 존재인가 과정인가. 철학과 현실사.

한수정 (2002). 성인기 애착 양식원형과 내적

- 작동 모델 요소간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93-124.
- 함인희 (1997). 한국여성의 가족주기와 역할의 변화. 한국여성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23-150.
- 홍승아 (2008). 일·가족 양립정책의 방향과 과제. 젠더리뷰, 2008(겨울), 4-15.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1(1), 199-212.
- Anthony, E. J., & Benedek, T. (1970). *Parenthood: Its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 Oxford, England: Little, Brown. xxiv.
- Balbernie, R. (2001). Circuits and circumstances: The neurobiological consequences of early relationship experiences and how they shape later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27(3), 237-255.
- Baldwin, M. W., Keelan, J. P. R., Fehr, B., Enns, V., & Koh-Rangarajoo, E. (1996). Social-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94-109.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eitel, A. H., & Parke, R. D. (1998). Paternal involvement in infancy: The role of maternal and paternal attitud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2), 268-288.
- Belsky, J., Gilstrap, B., & Rovine, M.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interaction in a family setting at one, three, and nine months. *Child Development*, 55(3), 692-705.
- Berman, P. (1980) Are women more responsive than men to the young? A review of developmental and situational variabl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668-695.
- Bonney, J. F., Kelley, M. L., & Levant, R. F. (1999). A model of fathers' behavioral involvement in child care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3), 401-415.
- Bornstein, M. H. (1995). Parenting infants. *Handbook of parenting*(Vol. 1): Children and parent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Hillsdale, NJ, Engla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1. London: Hogarth Press.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I. Aetiology and psychopathology in the light of attachment theor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 Bowlby, J. (1984). Violence in the family as a disorder of the attachment and caregiving system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 44(1), 9-27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NY, US: Basic Books.
- Brennan, K. A., & Shaver, P. R. (1993). Attachment styles and parental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1(1-2), 161-175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Nos. 1-2, Serial No. 209).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Greenberg, Mark T.; Cicchetti, Dante; Cummings, E. Mark (1990).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series on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pp. 273-308). Chicago, IL, U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etherton, L., Biringen, Z., Ridgeway, D., Maslin, C., & Sherman, M. (1989). Attachment: A parental perspective.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0, 202-221
- Bridges L. J., Connell, J. P., & Belsky, J. (1988).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interaction in the strange situation: A component process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92-100.
- Cabrera, N. J., Tamis-LeMonda, C.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 E. (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 127-136.
- Caplan, G. (1954). Clinical observations on the emotional life of children of communal settlements of Israel. In Senn, M. S. E.(Ed.), *Problems of infancy and childhood*. New York: Josiah Macy Foundation.
- Cassidy, J. (1999). The nature of the child's tie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Chodorow, N.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llins, N. L. & Read, S. J. (199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working models. Bartholomew, Kim; Perlman, Daniel (1994).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5. 53-90. London, England: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Cowan, P. A. (1988) *Becoming a father: A time of change, an opportunity for development*. Bronstein, Phyllis; Cowan, Carolyn Pape (1988). *Fatherhood today: Men's changing role in the family*. 13-35. Oxford, England: John Wiley & Sons.
- Cox, M. J., Owen, M. T., Henderson, V. K., & Margand, N. A.(1992) Prediction of infant-father and infant-mother attach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474-483.
- Erickson, M. F., Sroufe, L. A., & Egeland, B. (1985).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in a high-risk sample. *Monographs of the*

-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147-166.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 Norton.
- Forbes, G.B., & Adams-Curtis, L. E. (2000). Gender role typing and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0*(2), 258-260.
- Fox, N. A., Kimmerly, N. L., & Schafer, W. D. (1991). Attachment to mother/attachment to father: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62*(1), 210-225.
- Galinsky, E. (1981). *Between generations: The six stages of parenthood*. New York: Berkeley.
- Greenberg, M. T., Speltz, M. L., & DeKlyen, M. (1993).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early development of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Special Issue: Toward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conduct disorder, 5(1-2), 191-213.
- Haigler., V. F., Day., H. D., & Marshall, D. D.(1995). Parental attachment and gender-role identity. *Sex Roles, 33*(3-4), 203-220.
- Hawkins, A. J., & Belsky, J (1989)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in personality change in men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Family Relations. 38*(4), 378-384.
- Hazan, C., & Shaver, P. R. (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1), 1-22.
- Hazan, C., Zeifman, D., Bartholomew, K., & Perlman, D. (1994).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England: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Hoffman, L. W. (1977). Change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 *American psychologist, 32*, 644-657.
- Hoffman, L. W. (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83-292.
- Hugent, J. K. (1991) Cultur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s on the father's role in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75-485.
- Insel, T. R. (1997). A neurobiological basis of social attach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6), 726-735.
- Isabella, R. A. (1993). Origins of attachment: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 across the first year. *Child Development, 62*, 373-384.
- Jain, A., Belsky, J., & Crnic, K. (1996). Beyond fathering behaviour: Types of da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431-442.
- LaFreniere, P. J., & Sroufe, L. A. (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Inte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56-69.
- Lamb, M. E., Pleck, J. H., & Levine, J. A. (1985-1986) Effects of paternal involvement on fathers and mothers. *Marriage & Family Review. 9*(3-4), 67-83
- Lytton, H. (1980). Family Life Viewed Through Different-Powered Lenses. *PsycCRITIQUES*,

- 25(8), 615.
- Main, M., & Weston, D. R. (1981). The quality of toddlers' relationships to mother and to father: Related to conflict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 932-970.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66-104.
- McBride, B. A., & Rane, T. R. (1997). Role identity, role investments, and paternal involvement : Implications for parenting programs for m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173-197.
- Mickelson, K. D., Kessler, R. C., & Shaver, P. R. (1997). Adult attachment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5), 1092-1106.
- Noddings (1984), "Caring," V.Held(1995), Justice & Care: Essential Readings in Feminist Ethics, Westview Press.
- Paquette, D. (2004). Theorizing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Mechanism and developmental outcomes. *Human development*, 47, 193-219.
- Parke, R. D. (1996). *Fatherhoo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sons, T. (1955). "Sex Roles and Family Structure", (eds.), *Woman in a Man-Made World*, Chicago : Rand McNally.
- Pastor, D. L. (1981).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 to toddlers' initial sociability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3), 326-335.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5), 579-600.
- Pianta, R. C., Nimetz, S. L., & Bennett, Elizabeth. (1997). Mother-child relationships,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school outcomes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3), 263-280.
- Pruessner, J. C., Champagne, F., Meaney, M. J., & Dagher, A. (2004): Dopamine release in response to a psychological stress in human and its relationship to early life maternal care: a position emission tomography study using Raclopride. *The journal of Neuroscience*, 24, 2825-2831.
- Rickel, A. U., Dudley, G., & Berman, S. (1980). An evaluation of parent training. *Evaluation Review*, 4(3), 389-403.
- Rogers, C.,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Mass. : Houghton Mifflin.
- Rotundo E. A., (1985) *American fatherhood : a historical perspectiv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9, 7-25.
- Ruddick, S. (1983). "Maternal Thinking", Joyce Trebilcot, (eds.), *Mothering: Essays in Feminism Theory*, Rowman & Allanheld Publishers.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1.
- Russell, G. (1983). *The changing role of fathers*. St. Lucia, Australia: Queensland University Press.
- Ryan, N. E., Solberg, V. S., & Brown, S. D.

-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84-89.
- Scarr, S. (1984). *Mother care, other care*. New York: Basic Books. 현은자 (역), 어머니의 양육과 타인의 양육. 서울: 양서원, 1992
- Stern, D. (1977). *The first relationship: Infant and moth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rn, D. N. (1995). Self/other differentiation in the domain of intimate socio-affective interaction: Some considerations. In P. Rochat(Ed.), *The self in infancy: Theory and research* (pp.419-429). Amsterdam: North Holland-Elsevier.
- Storey, A. E., Walsh, C. J. Quinton, R. L., Wynne-Edwards & Katherine, E. (2000). Hormonal correlates of paternal responsiveness in new and expectant father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1*(2), 79-95.
- Thronick, E. Z. (1989). Emotions and emotional communications in infants. *American Psychologist, 44*, 112-119.
- Tiger, L., & Fox, R. (1971). *The imperial animal*. Oxford, England: Holt, Rinehart & Winston.
- Veneziano, R. (2001). The importance of father love: History and contemporary evidenc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82-405.
- Whitehead, S. M. (2002). *Men and Masculinities*. Cambridge & Malden: Polity.
- 1 차원고접수 : 2009. 2. 11.
심사통과접수 : 2009. 3. 6.
최종원고접수 : 2009. 3. 18.

Review of attachment theory and parenting

Hee 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attachment theory that emphasizes the emotional bond between a caregiver and a child has been the base of the theory of maternal deprivation. The tendency of research on attachment recently for 10 years in Korea shows that most attachme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bout infants and toddlers and rarely interested in father-children attachment compared to mother-children attachment. In addition, caregivers' development through being parents has been hardly examined although attachment is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researcher reinterprets the meaning of motherhood and fatherhood based on attachment theory and suggests the importance of father involvement and the need of coparenting. Parents' own development through parenting is also discussed.

Key words : attachment, parenting, fatherhood, maternal deprivation